

발표자: 김정하(지중해지역원, HK연구교수)

발표 제목: '교류'의 르네상스

요약 내용: 본 발표의 목적은 14~16세기와 이탈리아에 국한된 사건의 관점을 지양하고, 르네상스를 문명 간 교류의 관점에 근거해 다양한 사건과 사실들의 유기적인 모자이크, 즉, 일련의 관계구도와 흐름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르네상스를 역사적 에피소드의 점들로 구성된 선의 개념으로 재해석하려는 의도이다.

점과 선의 논리로 르네상스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시간 인식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점들의 연속성, 발전성, 방향성을 인식하는 것이 시간인식의 문제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둘째, 르네상스를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보적 상호관계의 논리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후자의 논리에 따르면, 각 점(사건)은 상호 간의 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협력과 경쟁의 역할로 작용한다.

셋째, 르네상스의 역사는 동질(同質)의 독립적인 역사단위가 아니다.

넷째, 르네상스가 로마제국의 몰락이후, 게르만과 이슬람의 지중해 진출을 계기로 적어도 16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일련의 사건들을 매개한 문명 교류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몇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는 십자군, 동로마제국의 몰락, 이베리아 재정복, 대학의 성립, 무슬림 시칠리아와 노르만 시칠리아 그리고 호헨스타우펜 시칠리아의 지배, 지중해 문명교류의 '열린 지역' 과 지중해 중계무역, 지중해 문명의 세속화, 동서교류, 오스만 제국을 지적할 수 있다.